

2019년 10월 3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방역정책과 과장 김상경(044-201-2511), 서기관 정재환(2515)
구제역방역과 과장 김대균(044-201-2531), 서기관 장순석(2537)
축산정책과 과장 박정훈(044-201-2311), 서기관 서정호(2322)
축산경영과 과장 송태복(044-201-2331), 서기관 김성구(2336) / 제공일 : 10월 3일 (총 2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확산 차단을 위해 파주·김포·연천에 특단의 조치 추진 - 관내 돼지 전량 先 수매, 後 예방살처분 -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농식품부)는 파주·김포시에서 연이틀 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파주·김포시 관내 발생농장 반경 3km 밖의 돼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특단의 조치를 추진키로 해당 지자체와 협의했다고 밝혔다.

○ 협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우선, 비육돈* 수매를 10월 4일부터 신청을 받아 즉시 추진한다.

* 5개월 이상 사육하여 식용으로 출하 가능한 돼지

- 수매대상 돼지는 농가에서 사전 정밀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 도축장으로 출하를 허용하고 도축장에서 다시 임상·해체 검사를 거쳐 안전한 돼지만 도축 후 비축한다.

- 다만, 발생농가 반경 3km 내의 기존 살처분 대상 농가는 수매대상에서 제외된다.

② 수매되지 않은 나머지 돼지 전량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신속히 추진한다.

□ 아울러, 농식품부는 연천군의 경우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양돈농가 대상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논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다.

□ 또한, 농식품부는 최근 파주·김포에서 잇달아 4건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

○ 접경지역의 도축장, 분뇨처리시설,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시설과 차량 및 농장 등에 대한 집중 소독을 위해 경기·인천·강원의 일시이동중지명령을 10월 4일 3시 30분부터 10월 6일 3시 30분까지 48시간 연장키로 하였다.